



**양건** / 정회원, 가우건축사사무소  
by Yang, Gun, KIRA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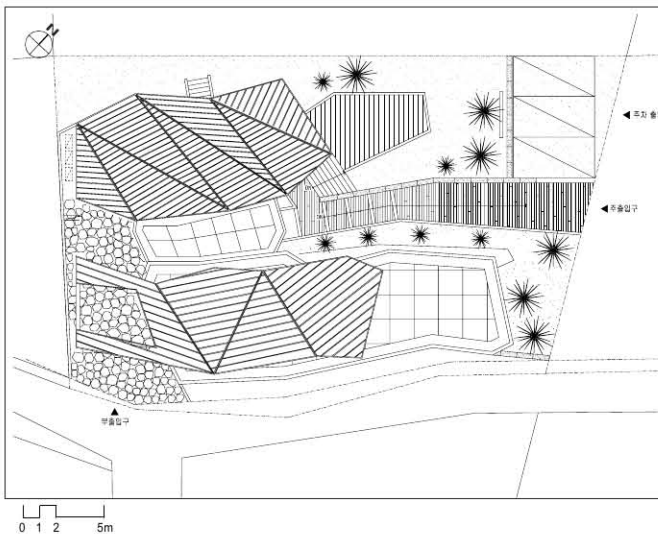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동대학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및 박사과정
- 제주대학교 건축디자인전공 겸임교수
-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제주시 건축상
- 2007년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현상설계 당선

# 제주명품사옥

Jeju Myungpum Business Hous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 2319-8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주요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650.00㎡
건축면적	259.50㎡
연면적	291.49㎡
건폐율	39.92%
용적률	44.84%
규모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내부마감	송판노출, 동판 거벌접기, 투명우레탄 마감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동판 거벌접기, 두께22 칼라복층유리
설계담당	김정일, 문희범
설비설계	기술사사무소 미릉
전기설계	(주)홍산엔지니어링
시공사	(주)강한건설
설계기간	2007. 02 ~ 2007. 05
공사기간	2007. 05 ~ 2008. 01



Location	231-8, Ora 3-dong, Jeju-si, Jeju-do, Korea
Site area	650.00㎡
Bldg area	259.50㎡
Gross floor area	291.49㎡
Bldg. coverage ratio	
Gross floor ratio	
Structure	R,C
Bldg. Scale	F2





우리는 흔히 서예나 수묵을 오래 다룬 작가들의 글씨에서 필력을 느낀다고 하고, 형태와 크기가 똑 같은 그림일지라도 작가에 따라 그 심상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일차적으로 시각적 인지에 의한 형상의 파악 위에 보이지 않는 힘의 교감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묵화나 서예작품을 감상하는 맛이라 할 수 있다.

설계를 하기 위해 대지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대지를 포함한 주변 환경이 하나의 계(界)를 이루며 각 요소간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태도로 접하게 된다. 즉 주변 환경의 각 요소들이 존재성을 유지하며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으며 현 상황은 최대한 안정된 상태인 '힘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작은 세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물론 관찰의 주체인 나 역시도 그 대지에 들어서서 관찰의 임무를 시작한 순간 동시에 그 세계를 이루는 한 요소로서 작용될 것이며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움직임은 읽어내고 건축으로 실현되어 그 환경계에 한 요소로 작동하더라도 현재의 평형상태가 유지 될 수 있어야만 좋은 건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다소 관념적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시각으로 대지를 읽는 일은 오히려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에 접근됨을 경험하게 된다.

대지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 대한 생각이 도시적 스케일로 확장되면 힘의 평형상태를 이루는 정적인 상황보다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흐름'이 발생함을 알게 된다. 도시에는 교통, 도로, 에너지, 사람, 물류, 자본, 문화 등 여러 층위의 움직임이 쉴 새 없이 일어나며 그러한 움직임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이 형성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가 조금 더 발전되면 건축계의 아방가르드들이 정의하였던 플러그 인 시티(Plug - In City)의 개념이 가능한 것이다. 즉 도시란 다양한 층위(Layer)의 흐름들이 중첩되어 있는 마더보드 위에 사회적 요구에 의해 발생한 프로그램들의 플러그 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힘'이란 범주 내에 두기는 만만치 않은 주제가 '장소혼'의 얘기가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가장 주요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여기에 거론하고자 한다. '장소혼(GENIUS-LOCI)'이란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나의 건축생각에 많은 영향을 준 실존주의적 건축이론가인 슐츠(C. Norberg-Schulz)의 제언으로 어떠한 장소마다 그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일종의 정신과 같은 것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 땅에 혼과 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땅과 신(神)을 연계시키는 샤머니즘적 사고와는 다른 것으로 땅을 하나의 실존적주체로 이해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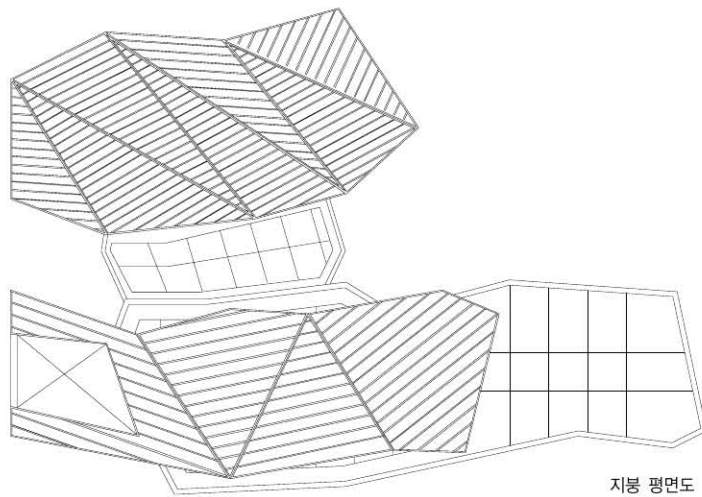
'제주명품전시관'도 이러한 생각으로 진행되었는데 대지의 지형, 주변의 건축물, 오래된 수목, 도시에서의 시선, 조망, 특히나 마을 내부로의 골목길 그리고 그 땅에 스며있는 기억과 흔적 등을 대지 내에 작용하는 힘의 요소로 인지하여 구상화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건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전시동의 부정형매스는 인접한 울레의 자글거림의 파동과 방문자와 시선을 교감하기 위한 연속적 면의 이동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이 유연한 콘크리트의

덩어리에 작용하여 힘의 평형상태를 이루는 지점에 그 형상이 결정되었고, 동판의 사무동 덩어리의 외피는 주변의 발들과 수목 그리고 향후의 확장성 등이 작용한 것이며 내부 프로그램이 창고, 사무실 등의 지원시설로 조금 더 강한 피막으로 구성된 것이다. 마치 물이 가득 찬 풍선의 형상이 들고 있는 사람의 손아귀 힘 또는 중력의 힘 등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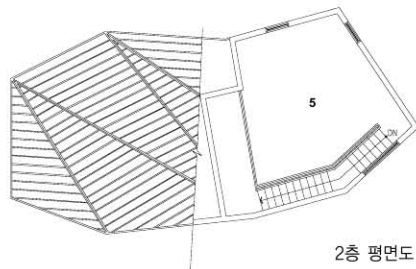
자유롭게 결정되듯이, 주변에서 작용하는 힘들에 의해 평형의 지점을 찾아 그 형상이 결정되는 프로세스를 통해 '공간' 과 '형태' 로 설명되는 기존의 건축에서 탈피하여 '주변계에 일체화된 건축' 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

- |   |                |
|---|----------------|
| 1 | 전경야경           |
| 2 | 올래 진입부에서 본 동측면 |
| 3 | 건물 남측면과 올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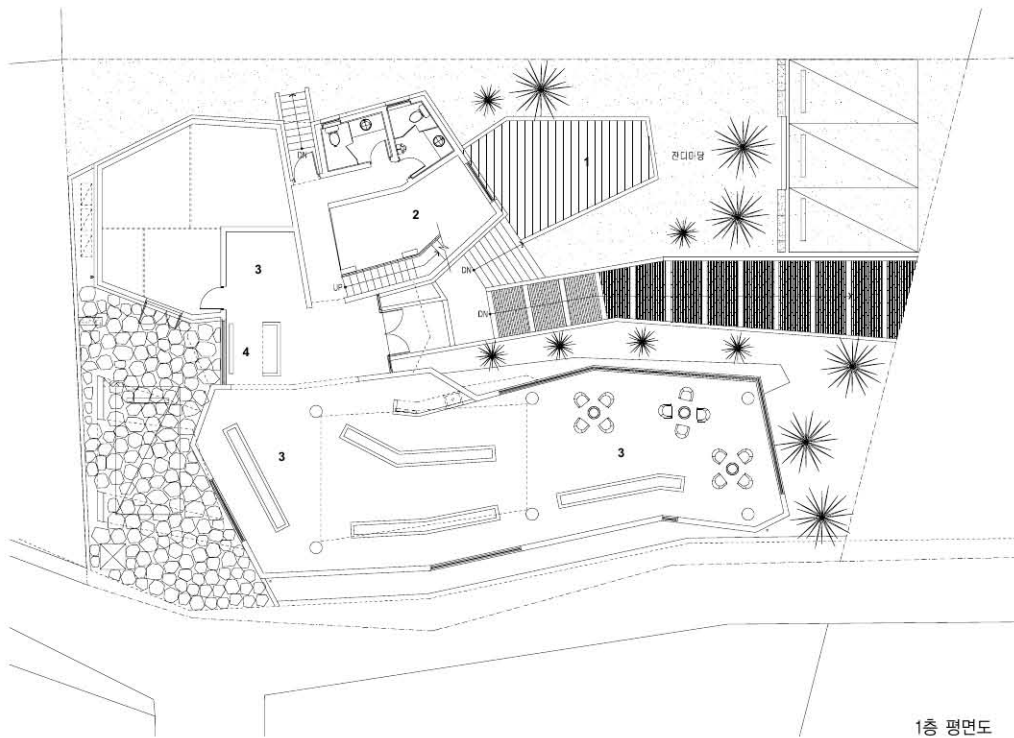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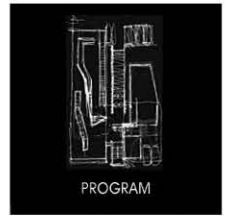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01\_ 데크
- 02\_ 사무실
- 03\_ 전시판매실
- 04\_ 안내
- 05\_ 사무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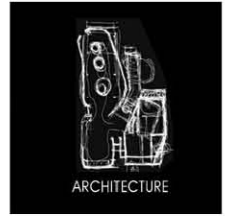
0 1 2 5m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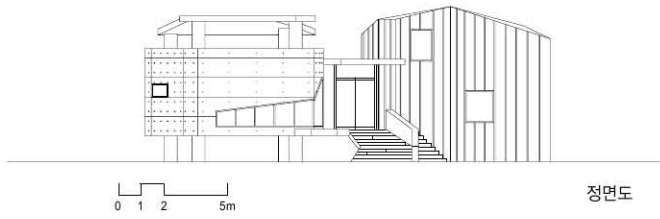


INVISIBLE FO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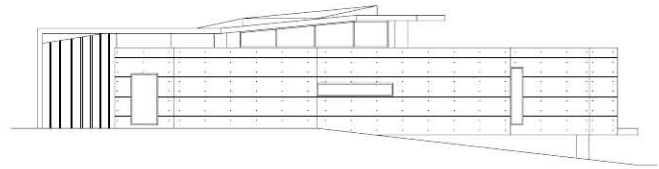


ARCHITECTURE

프로세스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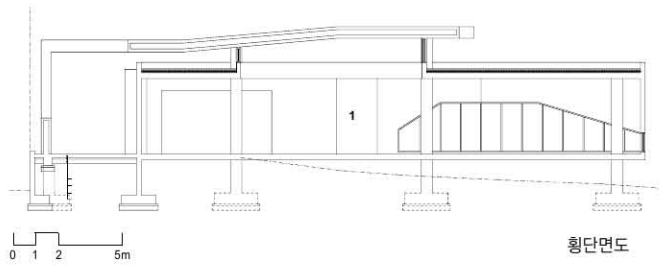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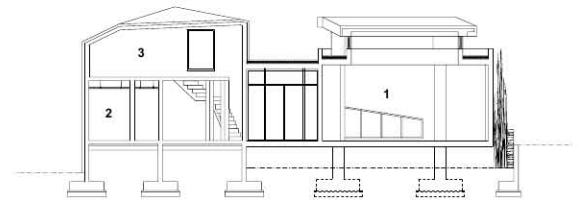
1	2	4	5
3	6		

- 1. 주출입구에서 바라본 진입로
- 2. 주출입구에서 바라본 테크와 잔디마당
- 3. 전시판매실
- 4. 사무실
- 5. 계단실
- 6. 내부전경





횡단면도



종단면도

- 01\_ 전시판매실
- 02\_ 화장실
- 03\_ 사무실

